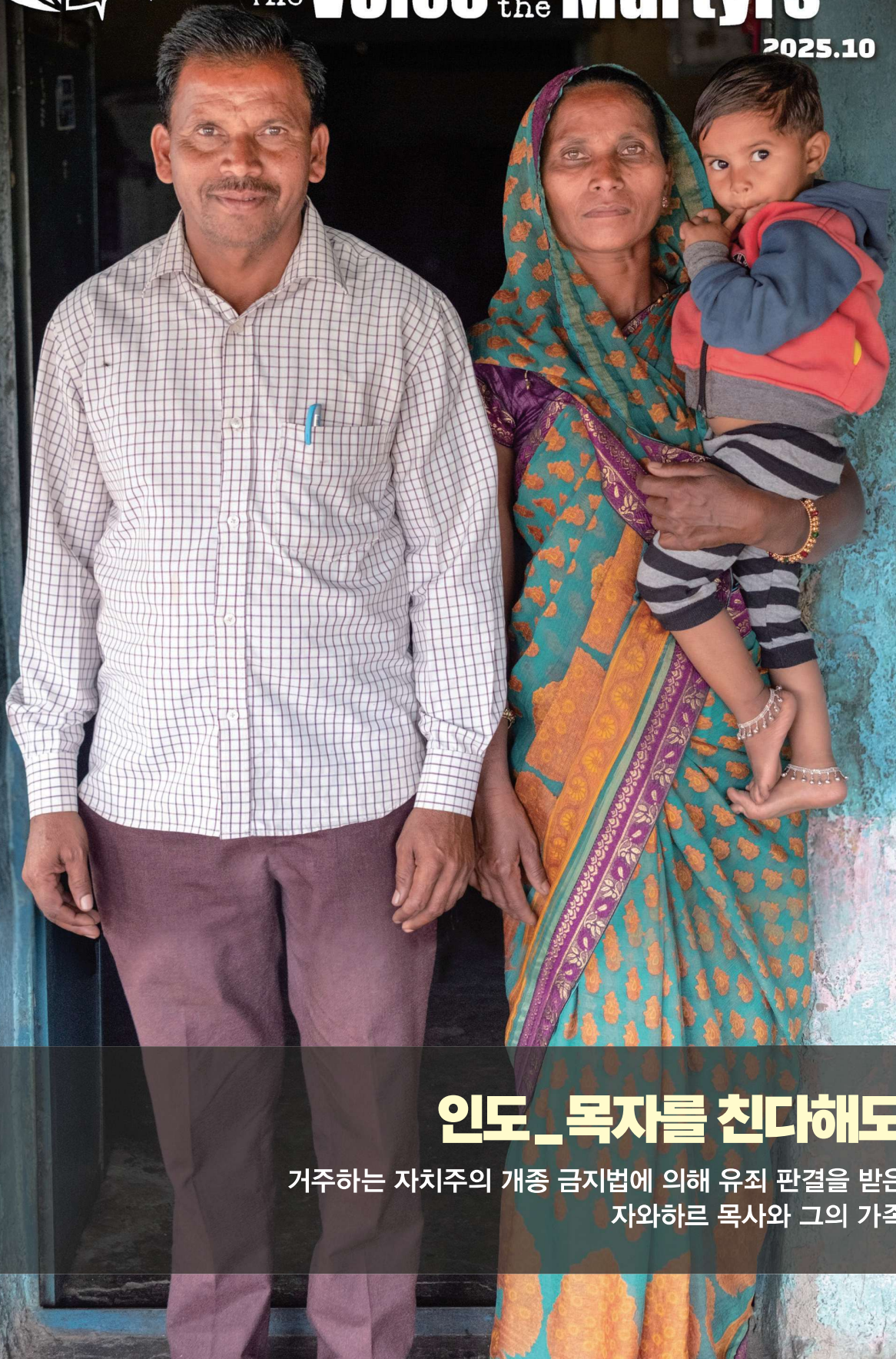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5.10



인도_ 목자를 친다해도

거주하는 자치주의 개종 금지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와하르 목사와 그의 가족

흠여지길 거부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래, 박해자들은 늘 주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적대적인 지역이나 기독교 금지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핍박을 기꺼이, 신실하게, 기쁨으로 견디면서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신실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받은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받는 목회자들은 뽄뽄이 흠여지길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충성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가 깊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소리가 전 세계 핍박받는 목회자들을 위해 주최하는 ‘지하 학교Underground University’ 훈련에 트라우마 치료를 필수적인 요소로 넣는 이유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전에 카메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지하 학교 훈련에 관한 기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카메룬 목회자들은 마을이 불타고 집이 파괴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글에 천막을 치고 생활해야 했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오른쪽 링크를 통해 이들과 함께한 지하 학교 훈련에 대해 읽어보세요!



부르키나파소

테러리스트가 오면

2019년 4월 28일 아침, 나탄Natan 목사의 아내 미리암Miriam은 교회 건물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오고 있음을 확신했다. “탕! 탕! 총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일단 그들이 오면, 더 이상 어디도 안전할 수 없어요.” 미리암은 말했다.

그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아프리카 북서쪽에 사하라 사막의 두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인 부르키나파소에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전례 없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 정부 혹은 칼리프caliphate 이슬람 교단의 통치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천 명을 살해하고 약 200만 명을 거주지에서 쫓아냈다.

중무장한 극단주의자들이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무기를 발포하는 일도 잦았다. 때로 목회자들에게 이슬람 설교를 들으라고 강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이따금씩 기독교인을 납치하거나, 심지어 목회자들을 처형하는 일도 벌어진다. 나탄 목사의 교회가 공격당하기 몇 개월 전, 이들 무장 세력은 160km 떨어진 마을에서 목사 네 명을 살해했다.

나탄은 2019년 4월 공격 직전,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의 마을 출신인 두 사람을 모두가 알만 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주일 아침 무장 세력들이 교회를 에워쌀 때, 나탄과 교인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문과 창문을 모두 닫으면서 교회를 봉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미리암의 머릿속은 곧 일어날지도 모를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차다.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구해주세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고요.” 미리암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포위된 그녀는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창문이나 문으로 도망갈 수 있는 틈을 찾아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교회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서 뭇들 하고 있는 거지?” 나탄은 그와 성도들은 단지 일요일 아침이면 세계 곳곳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어째서 남녀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그들이 소리치며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남녀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 엄격한 이슬람교 관습을 기독교인들이 지키지 않는 데 분노하던 그들은 위협적인 경고를 던졌다. “사흘 후에 다시 오지. 그때도 우리 눈에 띄면 너희 모두를 죽일테니 그렇게 알아!”

나탄 목사의 교인들 대부분은 그날 마을을 떠났다. 나탄이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으로 힘겨운 것은 미리암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라고 미리암은 말했다. 얼마 후, 나탄과 미리암은 당시 다섯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당나귀 수레에 최대한 짐을 싣고서 무장 세력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도망을 쳤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들 가족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했다. “힘들 때면 성경이 우리의 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우릴 돕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탄이 말했다.

나탄은 성경 속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자신과 교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사도행전을 읽으며,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고난을 겪고 그중 일부는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탄은 자신의 교인들이 직접 고난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말한다. “이제 그들은 고통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탄은 이렇게 덧붙였다.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며 사역하고자 했지만, 나탄과 미리암의 교인들은 이미 전국 각지로 흩어진 뒤였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나탄이 말했다.

지역 내에 보살필 양떼가 사라지자, 나탄과 미리암은 교회도, 목사도 없는 곳에 차근차근 새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최근 나탄 목사 부부는 부르키나파소의 수도인 와가두구Ouagadougou에서 북동쪽으로 약 두 시간 정도 떨어진 척박한 땅에 교회 건물을 지었다.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나탄과 가족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들에게엔 경작할 땅도 없었고, 사역을 지원해줄 교인도 거의 없었다. “이곳에 왔을 때, 우리 가족과 한 명의 교인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도가 30명이나 된 걸 볼 수 있어요.” 나탄이 말했다.

미리암은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또한 생후 18개월짜리부터 16세까지, 여섯 명의 자녀들을 포함한 온 가족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의 도움으로 나탄은 닭 몇 마



▲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새 성경책들을 전달받아 기뻐하는 나탄 목사와 아내 미리암

리와 사육 방법 등 양계업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았다. 닭 사육은 나탄이 가족을 부양하고 새 교회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다. “낯선 사람들이 오면 음식이나 음료를 주면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식량을 사줄 수도 있게 되었어요”라고 나탄이 말했다.

나탄 목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때문에 전에 살던 마을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고, 거의 모든 주민이 마을을 떠났다고 말했다. 처음에 나탄 목사는 마을에 남기를 원했고 심지어 마을을 떠난 뒤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자신의 사역을 도와줄 주민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탄 목사는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을에 남아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도 사역을 계속하는 데 있었습시다.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개척해 새로운 성도들을 섬기고 있지만, 나탄과 미리암은 부르키나파소 그 어디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파멸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키나파소에서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2025년 10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콜롬비아 '레드존'의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바레인 바레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뿌리 내리도록	
5	6 추석	7	8 대체공휴일	9 한글날	10
 멕시코 토착민들에 복음을 전하는 외딴 지역의 전도센터가 영적 열매를 맺도록	 튀니지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도록	 라오스 믿음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파키스탄 저임금으로 굶은 일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자유 주시기를	 예멘 교회를 공격해 성경을 빼앗은 이들이 오히려 성경을 읽고 감화되도록	
12	13	14	15	16	17
 지부티 기독교 성장을 막으려는 정부의 방해에도 복음이 확산되도록	 튀르키예 기독교인이 1%뿐인 튀르키예에 마28:19-20 말씀처럼 복음이 확산되도록	 브루나이 종교 경찰의 면밀한 감시에도 무슬림에게 담대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튀니지 개종한 성도들이 기독교를 거부할 수 있는 무슬림 동료들을 전도할 수 있게	 이란 정부의 억압 때문에 비밀 예배를 드리는 이란 개종자들의 교제를 위해	
19	20	21	22	23	24
 북한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카자흐스탄 최전방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전도할 창의적인 방법을 주심에 감사	 소말리아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린 소말리아 성도들이 소말리아에 교회를 세우도록	 시에라리온 문맹자가 많은 외딴 지역에서 영화 '예수'를 보여주는 사역팀을 위해	 멕시코 로마 가톨릭과 여러 우상이 혼합된 종교를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26	27	28	29	30	31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의 대원들이 오직 한 분이신 진리의 하나님을 찾도록	 시리아 시리아 성도들의 실질적 도움을 받아 많은 무슬림이 주를 믿게 하심에 감사	 부룬디 무슬림 공동체에 복음을 선포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부탄 현지 교회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효율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모리타니 개종이 불법임에도 기독교로 개종한 토착민들이 하나님 평안을 경험하도록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3 개천절	4
이스라엘 중요가 만연한 무슬림 지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이집트 위험을 감수하고 개종한 새신자를 양육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10	11
인도 힌두교도에 의해 교회가 파괴되고 괴롭힘을 당한 산토쉬 목사를 위해	알제리 당국자들에 의해 교회가 폐쇄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17	18
케냐 적대적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담대함과 힘을 주시기를	중국 정부의 위협에 직면한 중국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강건한 믿음을 지키도록
24	25
코모로 믿음 때문에 체포된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카타르 카타르의 외국인 마을에 사는 성도들이 현지 이웃들에 복음을 전하도록
31	
북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지역에 만연한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공격이 종식되도록	



핍박을 당하고도 모두에게 외면당한 목회자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특히 목회자들은 가장 가혹한 핍박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님께 변함없이 신실하고자 하지만, 그 모든 핍박과 트라우마를 홀로 감당하는 동시에 교회 성도들까지 격려하고 보살피는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의 자와하르 목사는 구타당하고 투옥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만나러 오거나 전화 한 통 해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목회자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핍박 국가의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하 학교 Underground University’ 훈련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핍박받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트라우마와 박해에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을 방문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순교자의 소리는 카메룬, 중앙아시아, 중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북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하 학교’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핍박 국가들에서도 이 ‘지하 학교’ 훈련이 역대 가장 많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회자 한 명이 ‘지하 학교’ 훈련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60만 원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10월 31일까지 헌금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유유’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유유’라고 기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흘어진 양떼를 돌보는 목자

인도의 엄격한 개종 금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목사의 이야기.
그는 교회를 잃었음에 슬퍼하면서도 믿음이라는 선물,
그리고 교제의 회복으로 인해 기뻐한다.



2021년 성탄절 시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제한 조치로 인해 교회 모임은 여전히 소규모로만 가능한 때였다. 자와하르 Jawahar 목사가 9년간 이끌어 온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2월 26일 일요일 그렇게 간단히 예배를 마친 후, 자와하르와 아내 아물리아 Amulya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바즈랑달 Bajrang Dal’에 소속된 힌두교 강경파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곧 중단되었다. 바즈랑달은 힌두교 민족주의 단체인 ‘세계힌두협회 Vishva Hindu Parishad’의 청장년 조직이었다. 그들은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이들 기독교인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을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있다며 소리소리 지르면서 나를 비난하더군요.” 자와하르가 말했다. 그 자리의 기독교인들이 그저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을 해도, 경찰은 계속해서 고발자들의 편을 들었다. 자와하르 목사는 “결국 경찰이 우리 중 셋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했고 매우 심하게 구타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폭행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했다.

이들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약 150명 가량의 힌두교 극단주의자가 경찰서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이 세 기독교인이 당일 아침에 ‘개종 집회’에 참석하라고 사람들에게

게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마을에서 온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그 집회에 끌려가 강제로 성경을 들어야 했으며, 개종 의식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물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기독교인들이 자녀의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혜택을 약속하며 기독교 개종을 유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들 눈에 명백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해냈다. 자와하르의 집에 있던 성경책과 물을 담을 수 있는 냄비가 고작 그 증거였다. 검찰은 이 증거물 두 가지와 낯선 주민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전체 사건을 구성했다.

자와하르와 아물리아가 사는 주(州)는 전체 인구 7,200만 명 중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는 반면, 힌두교도가 80%를 차지하는 곳이다. 다른 주들 역시 기독교인의 비율이 이보다 약간 높은 곳도 있긴 하지만, 인도 전체로 볼 때 기독교 인구는 총 인구 14억 명 중 5%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도 28개 주 중 거의 절반이 기독교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개종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주에서 활동 중인 최전방 사역자들에 따르면, 개종 활동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만으로도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인도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 및 투옥의 위협은 일상이



다.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에서는 2024년 하반기 기준 기독교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총 253명 투옥하였으며, 마지막 보고에 따르면 그중 93명이 여전히 수감 중이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기독교 믿음을 실천하다가 체포된 기독교 지도자들의 수는 840명이 넘었다.

여러 주에서 개종 금지법으로 인해 고발 위기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최전방 사역자는 이 법령이 소수 집단에게 매우 엄격하며 억압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족끼리도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웃 중에 이걸 ‘개종 행사’로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말이 지요.”

자와하르가 체포된 후, 아몰리아는 남편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찾아 고군분투했다. 처음 고용했던 변호사들은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면서도 자와하르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결국 아몰리아는 이러한 법적 비용과 보석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파산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 했다. 그녀는 가족 소유의 땅을 대출 담보로 넘겨야 했다.

한편 감옥에 있던 자와하르는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교인이나 사역 단체 지인들이 면회를 와서 교제와 조언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우려해 누구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때 우리 상황이 참 슬펐어요. 아무도 나를 만나러 오거나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시다. 내 아내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아이들은 괜찮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그때, 교회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미 뿔뿔이 흩어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함께 체포당했던 두 장로의 가족들은 자와하르 목사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갔다고 비난했고, 이로 인해 자와하르의 가족은 더욱 고립되었다.

아몰리아가 계속 법적인 도움을 구하려 다니는 중에 일부 최전방 사역자가 이들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압박받는 기독교인

을 돕는 기독교 변호사팀에 이를 알렸다. 변호사들이 수감된 세 기독교인을 돕기 위해 개입했고, 45일간의 구금 끝에 마침내 자와하르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자와하르는 교회를 잃었다는 것과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법적 구제를 위해 떠안게 된 엄청난 빚으로 인해 당혹감과 비통함에 빠져 슬퍼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었던 땅까지 담보로 잡히면서 결국 빼앗기고 말았다.

“교회는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고, 현재 사역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밭에서 일꾼으로 일해야 하는데, 하루 일하고 받는 250루피(약 3천 원)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부족한 금액이지요.” 자와하르가 말했다.

최전방 사역자들은 자와하르와 아몰리아와 만난 이후, 이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부 지원해줄 수 있었다.

2023년 7월, 자와하르 목사와 두 교회 장로는 거주 중인 주 정부의 개종 금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각각 징역 2년과 5만 루피(약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나 상급 법원에 항소 중인 상태이다.

한편 자와하르 목사는 다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위로를 받고 있다. “내 믿음은 여전히 강건해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긴 했지만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와하르가 말했다.

체포 후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던 자와하르였지만, 보석 심리에서 그가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사역이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이곳을 섬길 거라고요.”

가장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자와하르의 변호팀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 항소가 기각되면, 자와하르와 공동 피고인들은 기독교 신앙 활동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게 될 것이다.

◀ 힌두교도들은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는 정화 의식이자 죄를 씻어내는 행위이다.



핍박받는 형제자매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동역해보세요!

순교자의 소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순교자의 소리에게 자원봉사자는 정기적,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역자입니다.

전화업무, 도서인쇄 및 출고, 라디오 방송 녹음, 번역 및 멀티미디어 사역, 소식지 발송, 수감자 편지쓰기 사역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문의

02-2065-0703 (화-토 9:00-17:00)
서울, 대전, 부산 사무실 봉사 참여 가능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기독교 수감자들에게 편지쓰기

마태복음 25장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들에게 가정, 교회, 소모임에서 가족, 친지, 친구, 아이들과 함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면 수감자의 모국어로 된 인사말과 성경구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및 기도달력 신청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요청한 365일 기도제목이 담겨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우리 형제자매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역에 더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달력을 추천해주세요.



문자신청

010-3151-2065로
주소/성함을 보내주세요.

※ 기도달력을 신청하시면 매월 소식지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핍박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먼저 사용하세요!

업무 대전 사무실: 북한사역 간사_단체가 운영하는 탈북민 선교 학교의 행정 및 관리
수업/행사 준비 및 진행

시설 관리 매니저_여러 지역에 위치한 단체의 시설 관리/유지
자원봉사팀 간사_단체 후원자 및 소식지 구독자들과의 소통
사무실 방문 봉사자 섬김

부산 사무실: 자원봉사팀 간사_단체 후원자 및 소식지 구독자들과의 소통
사무실 방문 봉사자 섬김

디지털컨텐츠 간사_영상촬영/녹음/편집 및 웹사이트 관리
번역가_단체 내 모든 보고서 및 보도자료, 소식지 및 도서 번역

자격 기독교인 / 관련 영역 유경험자, 영어 가능자 우대

info@vomkorea.com으로 이력서를 접수하시면 단체 내규 지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웹브란트/에릭 폴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웹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 2
각 10,000원



『최초의한국어성서와
한국개신교의기원론』
15,000원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존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조선어 스터디 성경』
일반 25,000원
큰글자 30,000원



『조선어 스터디 성경』
(창세기/산악)
10,000원



『21세기 존로스 목자관
[누가복음전서]』
10,000원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마르크스와
사탄』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웹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여행자 - 복음 위해
사선을 넘은 자들』
10,000원



『역경의 길 위에서』
10,000원



『이란
- 희망과의 조우』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